



미 증시, 부진한 고용지표 결과, 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4 일(화) 미국 증시는 2 월 JOLTS 구인이직건수 부진, 공장재 수주 감소 등 경제지표 부진,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의 은행권 위기 지속 가능성 언급 따른 경기침체 우려 확산되며 하락 (다우 -0.59%, S&P500 -0.58%, 나스닥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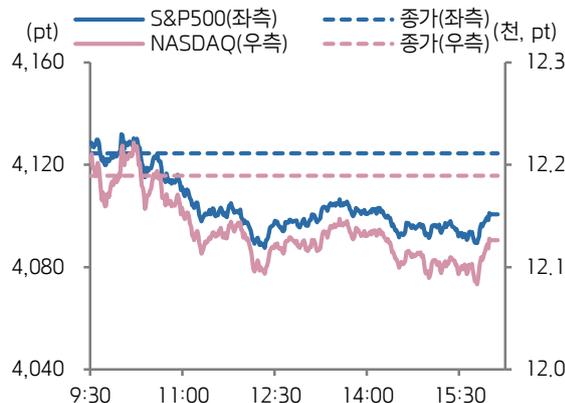
미국 2 월 JOLTS 구인이직건수는 993 만건(예상 1040 만건, 전월 1056 만건)을 큰폭으로 하회, 2021 년 5 월 이후 처음으로 1000 만건하회.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가 27.80 건 감소, 숙박과 음식 서비스가 12.5 만건 감소했고, 무역과 운송-유틸리티에서 21 만 건 감소기록. 파월 의장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인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 비율은 1 월 1.9 명에서 2 월 1.7 명으로 하락,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완화되었음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인 1.2 명 보다는 높은 수준.

미국 2 월 공장재 수주도 전월대비 -0.7%(예상 -0.5%, 전월 -2.1%) 감소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항공기 제외 자본재 수주 역시 -0.1% 감소하며 전월 0.2%대비 부진.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성장률은 연율 1.7% 기록하며, 2 주 전 전망치였던 3.5% 대비 하향조정.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체이스 CEO 는 연례 주주서한에서 은행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은행과 대출기관이 보수적으로나가면서 금융긴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또한 “우리는 잠재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일부 부동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히며 2008 년과 같이 급속도로 위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여파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험에 대해 경고.

업종별로 에너지(+4.9%), 헬스케어(+1.1%), 소재(+0.7%) 업종은 강세, 부동산(-0.9%), 경기소비재(-0.9%), 유틸리티(-0.7%) 업종은 약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둔화 우려에도 유가는 소폭 상승세 이어가며 에너지 업종 강세 지속. 다이먼 JP 모건체이스 CEO 의 주주서한 내 은행권 위기 언급 여파로 퍼스트리퍼블릭뱅크(-5.55%), 팩웨스트 (-2.67%), JP 모건체이스(-1.31%), Bofa(-2.12%) 등 은행주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72.34	-0.18%	USD/KRW	1,316.64	+1.16%
코스피 200	320.38	-0.51%	달러 지수	102.07	-0.42%
코스닥	854.96	+0.88%	EUR/USD	1.09	+0.03%
코스닥 150	1,266.51	+0.5%	USD/CNH	6.87	-0.03%
S&P500	4,124.51	+0.37%	USD/JPY	132.43	-0.02%
NASDAQ	12,189.45	-0.27%	채권시장		
다우	33,601.15	+0.98%	국고채 3년	3.335	+4.5bp
VIX	18.55	-0.8%	국고채 10년	3.385	+2.5bp
러셀 2000	1,802.31	-0.01%	미국 국채 2년	3.963	-6.2bp
필라. 반도체	3,200.43	-0.94%	미국 국채 10년	3.411	-5.6bp
다우 운송	14,281.30	-1.09%	미국 국채 30년	3.628	-2.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1.05	-0.09%	WTI	80.42	+6.28%
MSCI 전세계 지수	649.20	+0.38%	브렌트유	84.87	+6.39%
MSCI DM 지수	2,791.44	+1.15%	금	2000.4	+0.71%
MSCI EM 지수	989.18	-0.11%	은	24.02	-0.56%
MSCI 한국 ETF	60.86	-0.59%	구리	404.55	-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6.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고용 부진에 따른 미 증시 약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하방 압력 정도 2.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 업종간 순환매 출현 여부 3. 장중 미 선물시장 움직임 및 원/달러 환율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 분기 중 미국 고용지표 상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일자리 급증은 연준 긴축 강도와 맞물리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현재는 그 색깔이 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4 일 발표된 2 월 JOLT(구인, 구직 보고서)에서 2 월 채용공고가 993 만건으로 전월(1,056 만건) 및 예상치(1,040 만건)를 모두 하회하면서 약 21 개월만에 처음으로 1,000 만건 아래로 내려온 상황. 이는 그간 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했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탄탄한 고용시장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

7 일 예정된 3 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추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음. 다만, 컨센서스 상 신규고용(컨센 24.0 만건 vs 전월 31.1 만건), 실업률(컨센 3.6% vs 전월 3.6%), 시간당평균임금(YoY, 컨센 4.3% vs 전월 4.6%) 등 주요 항목들은 대체로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일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의 "2008 년 금융위기와는 다르겠지만 SVB 발 사태 이후 은행권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언급에서도 추론해볼 수 있듯이, 향후에도 연준의 누적된 긴축 효과의 부작용이 중간중간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 지난 3 월 FOMC 나 그 이후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최근 은행권 스트레스가 본인들의 추가 긴축 명분을 약화시켰음을 시사한 만큼, 금리인상 사이클은 중반부에 도달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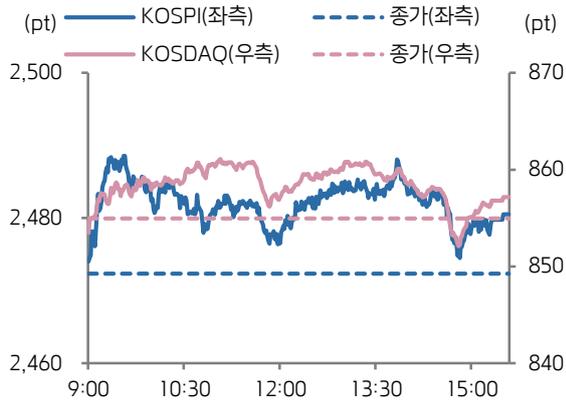
현재는 수시로 확률이 급변하면서 되려 시장에 혼란을 종종 제공하기도 하는 CME FedWatch 에서는 "5 월 금리 동결(금리 상단 5.0%) 및 7 월 25bp 인하 후 연말까지 총 75bp 인하(연말 금리 상단 4.25%)"가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긴 함. 첫 금리인하 단행 시점 및 인하 강도는 상황에 따라 전망이 뒤바뀔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해당 확률에 베팅을 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하지만 상기 언급한 a) 고용시장 둔화 추세 진입, b) 추가적인 은행권 위기 출현 가능성, c) 시장에 지배적인 의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책 전환 등을 조합해봤을 때, 연준의 정책 방향 자체는 향후 FOMC 를 거치면서 덜 매파적인 & 증시에 덜 비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베이스 증시 대응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또한 3 일 ISM 제조업 PMI, 4 일 2 월 JOLT 발표 이후 주가 하락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는 경기 및 이익 침체 우려와 그에 따른 주가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Bad news is bad news"장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해나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산유국 감산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상존, 미 제조업 PMI 부진에도, 원/달러 환율 급락 속 기관 중심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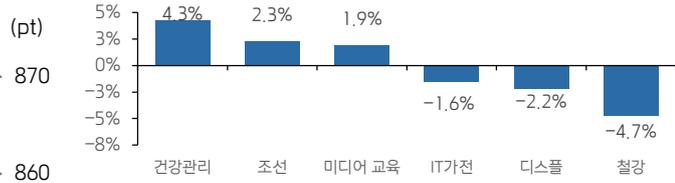
금일에는 경기 둔화 불안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 전환, 7 일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 조기 부각 등 매크로발 부담요인으로 인해 약세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도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일 장 증반 이후 경험했던 것처럼 2 차전지 업종에서의 일부 수급 이탈 및 바이오 등 여타 업종으로의 수급 분산 현상이 전개될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이와 연장선 상에서 최근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의 신용잔고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4 일 기준 코스피 신용잔고 8.9 조원 vs 코스닥 신용잔고 9.7 조원). 코스닥 신용잔고 급증의 대부분은 코스닥 내 IT 가전(+89% YTD), 화학(+60%, YTD) 등 2 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도했던 만큼, 추후 레버리지성 수급이 유발하는 이들 업종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경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